

광주 자동차부품 상생협력 납품 늘리기로

GGM 생산 대비 1차 협력사와 2·3차 업체 협력 차체·샤시·의장 등 사업화 5개 과제 10개 기업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할 예정 SUV 차량의 지역 내 부품 조달 안정화를 위해 광주시가 지역기업 상생 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형SUV 부품사업화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3차에 걸쳐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동차부품 모듈 사업화 지원과 기업맞춤형 통합 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전국 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GGM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 자동차부품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주관 기관은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이며, 참여기관은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광기술원이다.

모듈 사업화 지원은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업체 간 상생협력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차체·샤시 분야 3건, 의장 1건, 시트 1건 등 모두 5개 과제 10개 기업을 지난 8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과제당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부품기업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해 ▲저마진 고난도 부품 제조 공정 개선 ▲융합 전자제품 시장 확대 인종 ▲융합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융합 아카데미 발굴 ▲부품기업 체질 개선 지식 공유플랫폼 구축 ▲사업다각화 마케팅 지원 등 모두 5개 분야로 나눠 추진되며 20일부터 지원기업을 모집



해 오는 2월 업체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다른 지역 기업에서 납품돼 오는 부품을 지역 내 2, 3차 협력사가 1차 협력사와 공동으로 지역 안에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게 돼 기업기술력 향상과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 내용은 20일부터 (재)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자동

차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경중 시 인공기능산업국장은 18일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부품기업들의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동구, 두드림 '비대면 소통행정'에 앞장

광주 동구가 모바일 공공앱 '동구 두드림(Do Dream)'이 회원 수 2만4천여 명을 넘어섬에 동구민의 실시간 소통창구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일상 시대에 앞서 이미 선제적 대응에 나선 동구답게 2017년 2월부터 지금까지 지난 4년여 동안 꾸준한 편의기능 개선으로 '비대면 소통행정'에 앞장서는 등 구민 만족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구민들로부터 입소문이 자자한 '동구 두드림'은 매일 코로나19 상황을 공유하고 알아두면 유익한 '구정소식', 관내 미술관·소극장 전시공연 일정, 각종 강좌 수강생 모집 등 '문화소식'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서구, '2021년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참여 동아리 모집

광주 서구가 19일부터 지역 주민 독서생활의 기반이 되는 '2021년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독서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하여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독서문화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월 1회 이상 정기적 모임이 가능한 5인 이상의 독서동아리며, 선정된 독서동아리에는 스토리텔링 지원 스터디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스워크숍(문학 기행 등) 개최 지원과 작가 초청 북 콘서트 초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남구, 행복주택 선물, '발달장애 엄마·아들·딸' 희망 쌓기

엄마와 아들, 딸 모두가 발달 장애인인 한부모 가정 식구들이 50년이 경과한 노후 휴직에서의 힘겨웠던 삶을 정리하고, 전국 각지의 후원자 4,000여명이 준비한 행복주택에서 새 희망 쌓기에 나선다.

18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대촌동 외딴 곳의 낡은 휴직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A씨와 B씨, C씨 가족은 최근 새 보금자리로 조립식 주택을 선물 받았다.

이들 가족이 머물던 집은 휴직로 지어진 노후 주택인데다, 지난해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심각한 균열과 파손 등이 발생해 주거생활에 위협을 받는 상태였다. 구청과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엠마우스 복지관은 협업을 통해 이들 가족의 이주대책을 마련했고, 낡은 휴직이 있던 자리에 조립식 주택을 새롭게 지어 이들 가족에게 제공했다.

북구, 돌봄 이웃 대상 겨울나기 밀반찬 지원

광주 북구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다음달 19일까지 독거노인인, 장애인 1인 위기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 500세대를 대상으로 '행복 더하기! 영양 듬뿍 밀반찬 나눔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절기 취약계층의 결식을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이 기탁한 후원금 4000만 원으로 추진된다.

북구는 동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천 받은 각 가정에 4회에 걸쳐 밀반찬을 지원한다.

광산구, '백년가게' 온라인 시민추천 받는다

광주 광산구가 잠재력 높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온라인으로 '백년가게' 시민 추천을 받는다.

백년가게는 20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가게를 발굴해서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광산구 백년가게는 현재 6개 소이다.

시민이 추천할 수 있는 가게는,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20년 이상 광산구 소상공인 업체다. 시민 누구나 네이버 폼(<http://naver.me/GSjGjk4F>)에 접속해서 추천할 수 있다.

임형택기자

전남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조성...주민 주도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마을공동체 분위기 회복 및 청정자원을 관리·보존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주도할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중장기계획을 세워 본격 추진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민선 7기 핵심시책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지속 발전을 위해 바다·강·태양·갯벌 등 전남의 청정 자원 관리·보존과 함께 이웃 간 정이 넘치는 마을공동체 정신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블루투어(Blue Tour)를 완성하기 위해선 쾌적한 주변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

올해 첫 시작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업 계획부터 추진, 사후관리까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의 정신을 높여 생활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70억 원(도비 108억,

시군비 162억)이 투입되며, 도내 3천 개 마을을 대상으로 인식전환, 환경정화, 경관개선 등 3대 분야로 구분해 추진된다.

인식개선 사업은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가꾼다'는 주민들의 인식을 유도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라남도는 사군의 사업 결과를 종합평가해 포상하고 우수마을 홍보에도 나서 도민의 환경관리에 대

한 인식전환 및 마을공동체 정신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환경정화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생활·영농·해양 쓰레기를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집중 수거하고 폐기물을 분류·보관·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 깨끗한 전남을 만들게 된다.

경관개선 사업은 소규모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점의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해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정환기자

광주시, 올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대폭 강화

준공 후 20년 경과 공동주택 대상

광주광역시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13억 원 증액된 3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거환경에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개선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사업은 각 자치구에서 다음달 초까지 사업별 수요조사 후 시설개선이 필요한 단지로부터 신청 받은 후 심의를 거쳐 단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개선 사업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 경과되고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으로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 27억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근무환경개선(사업비 4억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사업비 1.5억원) 등을 추진한다.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은 단지 내 옥상방수, 주차장포장, 균열보수, 오·폐수관로 교체 등 공용부분의 시설개선을 나눠 시행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

선사업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비·청소원을 위해 지하에 설치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변경하거나 냉·난방 및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근무환경을 개선한 단지는 올 하반기에 근로자 처우개선 및 인권향상 분야에 노력한 모범단지로 선정해 '인권 우수 실천단지'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점검을 위해 안

전관리 비용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약 144억의 사업비로 노후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에 추진해 왔으며 15년 경과된 쌍촌·금호·우산빛여울체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받아 그린리모델링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후된 공동주택의 입주민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범인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남도본부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소득계층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고소득층 (5분위)	1.1배 (240,833원)
4분위	1.7배 (125,531원)
3분위	2.1배 (79,147원)
2분위	2.7배 (48,103원)
저소득층 (1분위)	5.3배 (26,697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보험공단